

가정내 아동돌봄도우미 관리 실태와 과제

변숙영¹⁾ 강일규²⁾

요약

이 연구는 아동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지원체계 정립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가정내 아동돌봄도우미 공급기관의 인력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대다수의 아동돌봄도우미 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돌봄도우미는 대부분 여성(97%)이었으며, 40대(32.4%), 유자녀 기혼(51.6%), 관련자격이 없는 경우(32.2%)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교육시간은 업체 간 편차가 컸고, 보수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만 평균 3시간으로 질적 담보가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장년 여성의 사회참여 수단으로의 확대를 위해 아동돌봄도우미의 일자리 안정성 확보 및 처우개선이 요구되며, 아동돌봄도우미의 전문성 향상과 아동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 양성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주제어: 아동돌봄도우미, 인적자원개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국내 사회 환경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보육시설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아동돌봄 인력의 공급은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제도 안정화·체계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영아나 아침 이른 시간과 저녁 늦은 시간까지의 아동돌봄 시간 연장 및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아동의 건강상태가 질병 등의 이유로 시설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가정 내 아동돌봄도우미 파견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며, 아동연령, 부모취업여부 등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어 시설보육만으로는 아동돌봄 수요 충족에 현재의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자녀양육과 교육에 관한 수요가 증대되고, 다양한 차원의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의 내실화가 미흡하여 보육수요 충족률이 6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수요 증가에 대비 보육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의 절반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낮은 임금, 프로그램 부실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과 부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0까지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을 80.8%까지 확대하고, 기본보육료 도입에 따른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양육 및 교육관련 담당자의 체계적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이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 계획을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2006).

다양한 보육서비스 유형 중 가정 내 아동돌봄도우미는 경제생산과 가사를 융합한 직업으로 가정에 있는 공간·설비·인력 등의 자원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업무로 주로 민간의 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우미 방식은 보육기관의 서비스에 비하여 융통성이 있어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보육방식 중 하나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이용률이 높아, 단순히 저소득층의 육아지원 차원을 넘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지원으로 그 지원 폭이 더욱 확대 요구되고 있다(강일규 외, 2008).

그러나 아동돌봄 서비스 관련 민간 업체 이용 실태 및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고 아동돌봄도우미를 제공하는 업체현황 및 시장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아동돌봄도우미의 자격기준 및 제도나 교육 및 훈련 과정, 도우미 및 아동 안전기준, 서비스 이용료 등과 관련된 통일된 관리규정이 없어 수요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아동돌봄 정책 및 아동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체제 정립을 위하여 민간 아동돌봄도우미 공급기관 현황 및 인력 관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적자원인 아동돌봄도우미의 전문성이기 때문이다(서문희 외, 2007).

2. 연구의 주요 내용

아동돌봄도우미의 인력 현황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추진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돌봄도우미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본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아동돌봄도우미 양성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한다.

셋째,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및 인력 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넷째,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돌봄 도우미의 개념 및 의의

Daly(2000)는 돌봄노동을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서, 병자, 노인, 어린 자녀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노동”으로 정의 하고 있다(김승권외, 2006 재인용). 장혜경 외(2007)는 돌봄노동의 일부는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노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노동은 물리적, 신체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존재한다고 정의하였다. 결국 돌봄노동은 신체적, 감정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활동이며,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Daly & Lewis, 2000). 돌봄 서비스는 유급이나 무급이냐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장혜경·김영란·조현각, 2007). 특히, 유급돌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정부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고용된 전통형 정규돌봄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영리 돌봄 단체에서 종사하는 혼합형 정규돌봄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단기 고용 돌봄노동 중계소에 등록되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형 정규돌봄서비스, 해당 가족 등에게 고용되어 개별적으로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도우미형 돌봄서비스로 구분된다. 이 중 시설보육은 전통형과 혼합형 돌봄 서비스에 해당되며, 가정내 아동돌봄도우미에 의한 서비스는 독립형 또는 개인도우미형 돌봄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많은 종류의 돌봄 노동 중 정부는 2006년부터 건강가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아이돌보미를 교육하고 만 0세~12세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 파견하여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육아경험과 자녀 양육관련 양성 교육을 바탕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며(조성은, 2007), 주요 역할은 이용자 가정 또는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퇴근시까지의 임시 보육, 병원 송영 서비스, 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이며,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07).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동돌봄도우미를 자녀 양육 관련 교육을 받은 자가 육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2. 정부 및 민간의 아동돌봄도우미 양성 및 지원 현황

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보미를 교육하고 만 0세~12세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 파견하여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50시간을 이수한 신체 건강한 65세 이하 여성으로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25시간 교육이 필수조건이다. 또한, 교육 시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수료가 인정된다. 아이돌보미들은 매월 보수교육과 월례회에 참여하고, 보육서비스 제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업에 대비하여 배상책임과 상해보험에 단체 가입되어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은 한달 120시간(년 960시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07).

나. YWCA 아가야 사업

YWCA에서는 SK(주)의 후원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으로 전국 16개 지역에 ‘아가야’ 센터를 2006년 개소함으로써 ‘시간제 전담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생후 24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가정에서 원하는 시간에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육도우미나 놀이 안내 도우미를 직접 아동의 집으로 파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였다(내일신문 2006.7.26일자).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 베이비시터 파견 이외에 영유아의 즐거운 성장을 돕는 놀이 안내, 방학 및 노는 토요일 체험활동 도우미, 교회, 동우회, 친목회, 공공기관 등 행사시 혼합연령지도가 가능한 기관 파견 도우미, 보조교사로 도움을 주는 보육시설 파견 도우미 등 다양하다. 베이비시터로서의 자격은 보육 및 교육 유자격자를 우선 채용하되 저소득 실업여성, 한 부모, 실질 가장 여성, 고학력 실업 여성, 30~40대 고졸 여성 등으로 다양하다. 교육은 3개월 80시간의 양성교육과정과 1개월 30시간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은 실직여성을 보육도우미로 교육하여 보육시설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보육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서비스 공급자인 실직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층은 보육부담 경감으로 간접적인 소득지원 효과 및 경제활동 참여 여건이 개선되는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www.civilnet.net).

영유아보육서비스는 만 2세 이하의 영유아를 8시~19시까지 보육하고, 야간보육서비스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을 오후 4시 이후부터 부모귀가시간까지 보육한다. 수혜가구와 1:1 상담 및 사례관리도 실시하는 등 보육도우미 파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도 포함하고 있다. 보육도우미는 보육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실직여성으로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다. 신입교육시간은 80시간, 일반교육 24시간, 현장실습 40시간으로 총 14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도우미 기본활동은 아이돌봄, 건강돌봄, 정서돌봄,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아기돌봄은 우유이유식 먹이기, 목욕과 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잠재우기 등이며, 건강돌봄

은 젖병 소독, 병원 또는 보건소 가기, 약 먹이기, 예방접종하기이고, 정서돌봄은 음악, 동화책 읽어주기, 연령별 놀이지도, 언어발달 지도 등이며 이외에 아기용품정리와 아기 옷 빨래가 포함된다. 보육도우미는 매일 가정보육일지를 작성하고, 아동발달을 위한 놀이지도 및 학습지도를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라. 민간의 영리 베이비시터 업체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일종의 벤처기업의 한 유형으로 제도권 보육의 사각지대인 가정 내 보육을 대상으로 베이비시터를 소개하는 영리사업체가 등장하게 되었다.

베이비시터 사업은 놀이방과 같이 공간을 마련하고 아동을 데려다 보호하는 것, 베이비시터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 아동 집으로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베이비시터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과 베이비시터 파견을 희망하는 가정에게 각각 가입비 및 수수료를 받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업무이고, 대부분의 사업체가 보육제공자에 대한 교육 등 자질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영리적 성격의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는 시간제 베이비시터 전문 업체와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업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인력파견을 하는 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설립되어 있고, 특히 중산층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다. 이들 베이비시터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며,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강일규 외, 2008). 서문희 외(2007)가 실시한 베이비시터 업체 실태조사에 의하면, 관련업체들은 베이비시터들을 가정에 파견하기 전에 평균 1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편차가 컸다. 교육내용 역시 유아교육개론, 유아놀이지도 등을 기초로 하지만 업체별로의 교육내용 기준도 일정치 않아 교육이 베이비시터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취업모가 보육시설이 아닌 영리업체의 베이비시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자녀의 연령이 보육시설에서 충분히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베이비시터의 전문성이 낮아 보육이 질이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만족도는 9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적 지원되는 보육서비스에 비해 사설 보육서비스가 좀 더 융통적인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 아동돌봄 서비스 사업 내용 요약표

기관	대상	서비스내용	교육시간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 신체 건강한 65세 이하 여성 ·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 만 0-12세 아동 중 서비스이용희망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 보육시설· 학교 등· 하원, 식사·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퇴근 시까지 임시 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 활동, 안전· 신변보호 처리 등 서비스 제공	· 50시간의 아이돌보미 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교육과정 25시간을 이수한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 단, 출석률 80% 이상 수료 인정
YMCA 아가야 사업	·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육 교육 자격자 · 저소득 실업 여성 · 실질 가장 여성 · 고학력 실업 여성 · 30~40대 고졸 여성	· 생후 24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의 시간제 전담 보육 · 8~21시까지 서비스 · 즐거운 성장을 돕는 놀이안내 시터, 방학 및 노는 토요일 체험활동 도우미시터, 행사시 혼합연령지도, 보조교사로 보육시설 파견	· 양성과정:3개월80시간 · 보수과정1개월30시간 · 형광인형과 함께하는 촉감놀이, 그림책 읽기, 미술지도, 신체놀이, 수· 과학 개념 익히기, 자연놀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한국 여성 노동자회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 보육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실직 여성	· 저소득층 만2세 이하 영유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 1:1상담 및 사례관리 · 지역지원연계시스템구축 · 아이돌봄, 건강 돌봄, 정서 돌봄 등	· 총144시간 보육도우미 교육 실시 · 신입교육시간 80시간, 일반교육 24시간, 현장실습 40시간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	· 베이비 시터를 희망하는 자	· 놀이방과 같은 공간을 마련하고 아동을 데려다 보호, 베이비시터의 집에서 아동 돌봄, 아동 집으로 파견해 돌보는 등 서비스 제공	· 가정에 파견하기 전 평균 14시간 교육(업체별 3시간에서 40시간까지 편차가 큼)

III. 연구방법

본 조사는 아동돌봄도우미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에 맞추어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아동돌봄도우미 업체(영리사업자) 리스트에서 임의할당 추출된 50개

업체와 아동돌봄도우미 100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 온라인 조사, 개별면접 조사를 병행하여 100%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게 하여 문항에 따라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아동돌봄도우미의 인력관리는 자격, 임금, 교육실태에 초점 맞추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9일부터 30일까지이다.

IV.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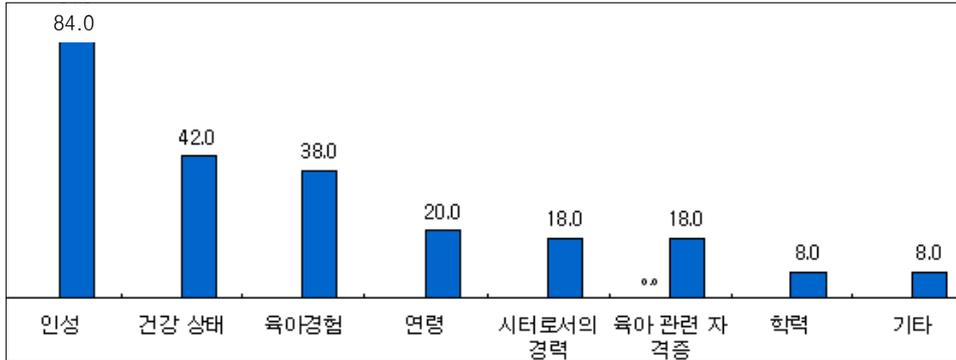
1. 일반사항

가.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현황

응답한 아동돌봄도우미 업체 소재지는 서울(28.0%), 경기(26.0%), 대전(8.0%) 순으로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의 5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업체의 해당분야 사업 경력은 3년 이상(40.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년 이상~3년 미만(32.0%), 1년 이상~2년 미만(18%) 순으로 나타났다. 종일제 상근 직원의 규모는 무응답(16.0%)을 제외하고 5명~10명 미만(28.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명 미만 업체(26.0%), 10명~30명 미만 업체(20.0%) 순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점(58.0%)이 가장 많았으며, 본점(22.0%)과 프랜차이즈 아님(18.0%)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는 44.0%로 나타났으며,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42.0%로 나타났다. 돌봄도우미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중 현장학습 베이비시터(44.0%)가 가장 많았으며, 입주 베이비시터(40.0%)와 놀이시터(40.0%)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서비스 희망자의 모집방법은 본인 희망/접수(94.0%)가 가장 많았으며, 타인 추천(28.0%)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도우미 희망자를 모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인성(84.0%), 건강상태(42.0%)와 육아경험(98.0%)순으로 나타나 인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돌봄도우미 희망자 제한사항을 학력, 경력, 연령, 건강, 결혼유무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업체에서 건강진단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연령, 경력, 학력 순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아동돌봄도우미 희망자 모집 시 선호하는 자격으로는 보육교사(78.0%)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18.0%)와 선호하는 자격없음(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아동돌봄도우미 모집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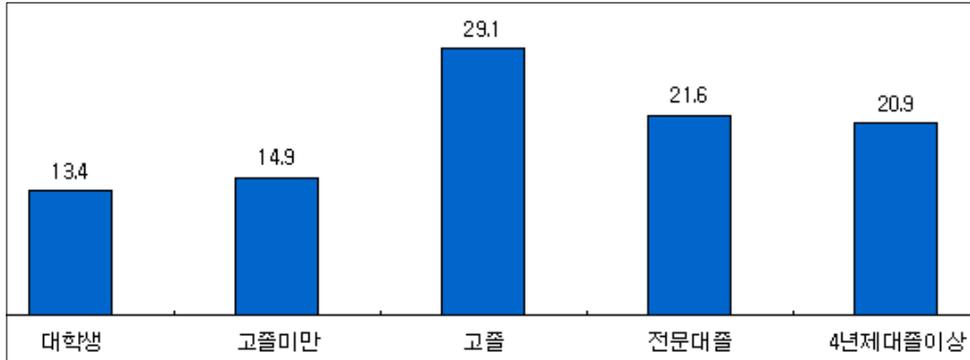
나. 아동돌봄도우미의 일반적 특성

아동돌봄도우미의 성별은 여성(97.3%)이 남성(2.7%)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40대(32.8%)가 가장 많고, 50대 이상(29.7%), 30대(26.6%)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들은 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51.6%)가 많았으며, 미혼(29.0%)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의 업무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만족)한다는 의견이 78.0%로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의 내용은 아동돌봄도우미의 일에 대한 낮은 전문성과 높은 이직율, 일에 비하여 낮은 임금,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과의 의견 마찰 등이 제기되었다.

2. 아동돌봄도우미 인력관리

가. 학력 및 자격실태

아동돌봄도우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학력은 고졸(29.1%), 전문대졸(21.6%), 대졸이상(20.9%)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고졸미만은 14.9%로 낮았다. 자격유무와 관련자격은 자격없음이 32.2%로 가장 높았고, 보육교사(28.9%)와 기타(26.7%)가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아동돌봄도우미 학력

나. 임금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되며, 시간제인 경우 최소시간이 3시간(48.0%)인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금액은 2만원~3만원 미만(64.0%)인 업체가 가장 많았고, 시간당 추가 금액은 5천원(88.0%)을 받는 업체의 비율이 높았다. 종일제의 경우 9시간~12시간(60.0%)인 업체가 많았으며, 금액은 3만원~5만원미만(50.0%)이 많았다. 종일제 한 달 평균 임금은 90만원~100만원미만(50.0%)이 많았다.

<표 2> 시간제 아동돌봄도우미의 기본시간별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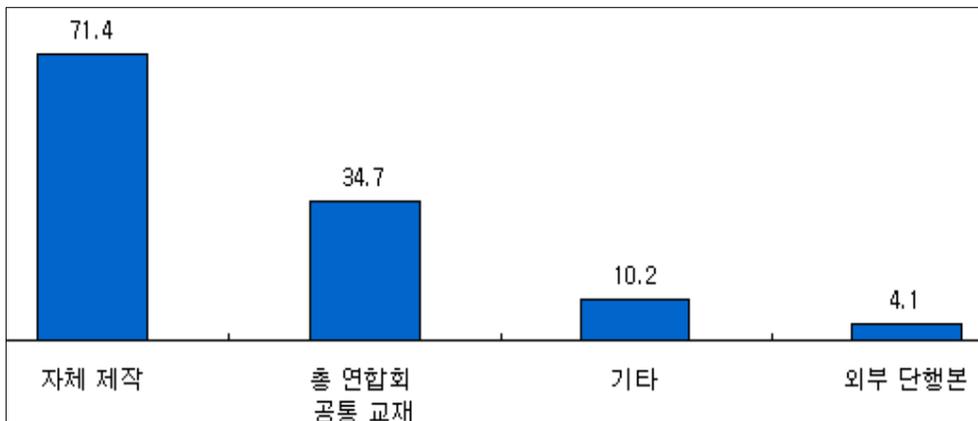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빈도 (사례)	1만원 미만	1만원~ 1.5만원미만	1.5만원~ 2만원미만	2만원~ 3만원미만	3만원 이상	계
전체	48	4.2	4.2	20.8	66.7	4.2	100.0
1시간	2	100.0	0.0	0.0	0.0	0.0	100.0
2시간	2	0.0	100.0	0.0	0.0	0.0	100.0
3시간	24	0.0	0.0	37.5	62.5	0.0	100.0
4시간	18	0.0	0.0	5.6	94.4	0.0	100.0
5시간	2	0.0	0.0	0.0	0.0	100.0	100.0

서비스시간은 신규자의 경우 한달 평균 약 5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자의 경우 약 104시간정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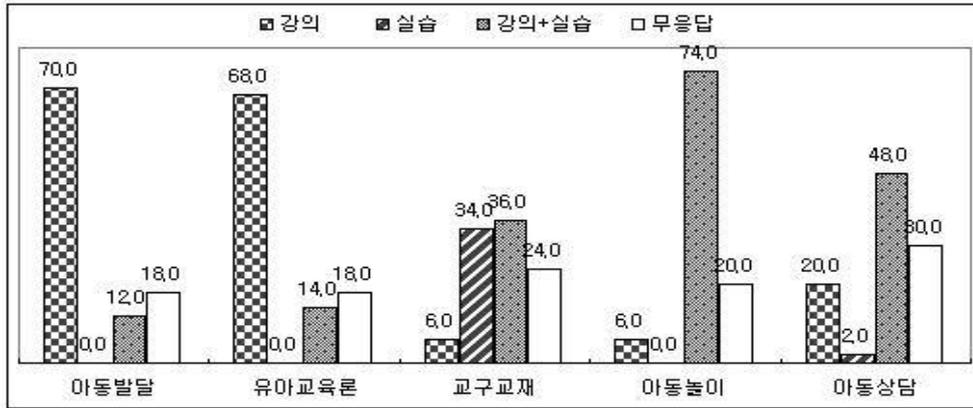
다. 교육실태

신규 아동돌봄도우미 교육은 업체의 98%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체 직원(57.1%)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교육시간은 약 37시간으로 나타났으나, 60시간이상(38.0%)인 업체가 많았고 10시간미만(22.0%) 업체가 다음 순으로 나타나, 그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여부에 따라서 본점이 약 46시간 정도인 반면, 프랜차이즈가 아닌 곳은 평균 약 26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교육교재는 자체제작(71.4%)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총연합회 공동교재(34.7%)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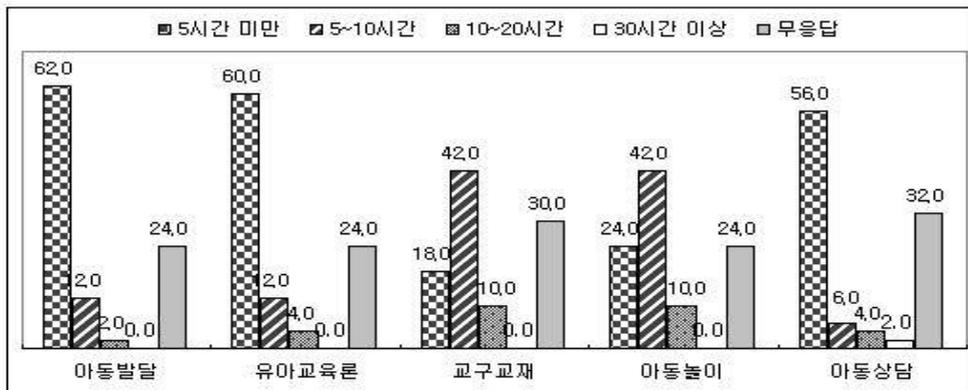
[그림 3] 아동돌봄도우미 교육교재 제작현황

아동돌봄도우미 교육의 주내용으로 선정된 아동발달, 유아교육론, 교구교재, 아동놀이, 아동상담 교과목의 교육방법과 교육시간을 분석한 결과, 아동발달과 유아교육론은 주로 강의법을 적용하였으며, 5시간미만으로 교육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구교재와 아동놀이, 아동상담은 강의+실습(36.0%)으로 교육하고 있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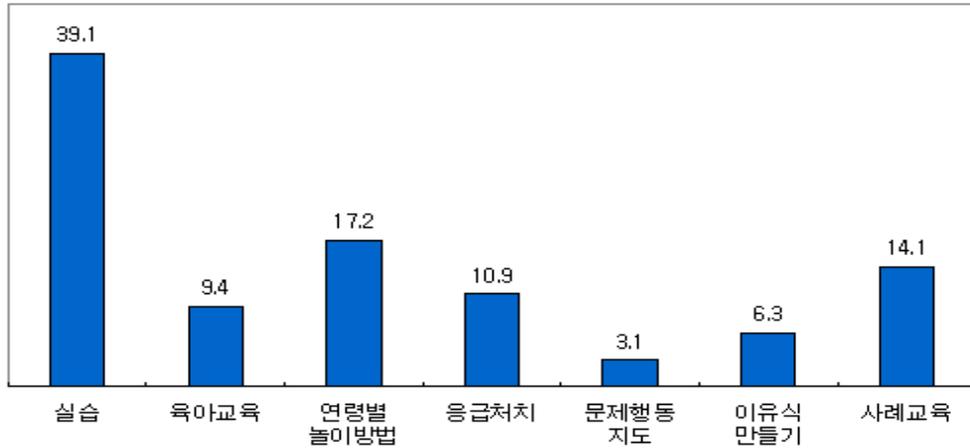
[그림 4] 아동돌봄도우미 교육 교과별 교육방법

교과별 교육시간은 교구교재와 아동놀이는 5시간~10시간미만(42.0%)이 가장 많았고, 아동발달, 유아교육론, 아동상담은 5시간미만(56.0%)으로 교육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그림 5] 아동돌봄도우미 교육 교과별 교육시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동돌봄도우미 교육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82.0%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업체별 특성에 따라 '부족하다'는 의견은 1년 미만(33.3%)과 3년 이상(30.0%)인 업체와 지역별로는 서울(35.7%)과 경기(23.1%)지역, 프랜차이즈 본점(36.4%)에서 높게 나타났다.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실습부족과 연령별 놀이방법 교육 보완, 사례교육 실시 필요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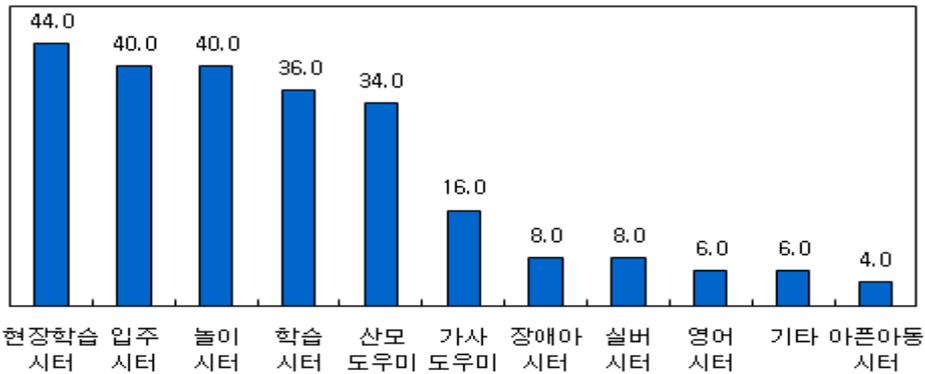


[그림 6] 아동돌봄도우미 교육에 보완되어야 할 교육내용

교육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여부는 회비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부담이 없는 업체(38.0%)가 많았으며, 회비에 불포함(22.0%) 업체가 다음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에서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교육을 받은 인력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교육받은 인력이 없다(34.0%)는 업체가 많았으며, 5명~10명 미만(18.0%)의 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다음 순으로 많았다.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업체가 73.5%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이 없는 곳도 26.5%로 나타났다. 보수교육 방법으로는 월별 실행(55.6%), 분기별 실행(2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수교육의 평균 교육시간은 약 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시간이 5시간미만(75.0%)인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교육내용은 이론은 아동발달, 유아교육, 아동의 문제유형과 성격, 베이비시터 역할과 자세, 직업의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습은 종이접기, 풍선제작, 마사지, 응급처치,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아동돌봄도우미 자체 토론 등 학습조직 유무를 설문한 결과 모임이 없다(50%)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정기 모임 중 52%가 교육내용 지원(84.6%)과 장소지원(76.9%)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 내용 및 인력 수요

아동돌봄도우미 업체에서 제공하는 아동돌봄서비스 내용은 현장학습 베이비시터(44.0%)가 가장 많았고, 입주 베이비시터(40.0%), 놀이시터(40.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아동돌봄도우미 제공 서비스 형태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향후 아동돌봄도우미 수요전망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78.0%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도우미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64.0%로 나타난 반면, 돌봄도우미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46.0%에 불과했다. 또한, 육아일지를 기록한다(92.0%)는 업체가 많았고, 육아일지는 부모확인을 통해 제출한다(64.0%)가 많았다. 이의 결과는 업무 완료시 보고받음(37.0%)이 많았으며, 주 단위로 보고받음(32.6%)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타 베이비시터 회사와의 교류의 필요성은 66.0%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베이비시터 공동교육의 필요성은 54.0%가 동의하였다.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제작·제공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9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관련 보험 단체 가입 지원의 필요성을 76.0% 동의하였고, 국가공인의 아동돌봄도우미 자격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4. 기타

주 이용 아동의 연령분포는 만 3세 미만이 59.5%, 만 3세 이상~만 5세까지가 29.1% 초등학생 취학 연령은 11.4%로 나타나, 취학전 연령의 비율이 전체의 88.6%인 것을 알 수 있다. 미취학 전체 아동 중 집에만 있는 아동의 비율은 45.5%인 반면, 기관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은 54.5%로 나타났다. 아동돌봄도우미 업체를 이용하는 취업 모 비중의 평균은 60.3%였으며, 전업주부의 비중은 39.7%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돌봄도우미 인력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력양성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아동돌봄도우미에 참여하고 있는 인적자원은 중장년여성층으로 사회적 의미있는 일의 참여와 집안일을 현실적으로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 보조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중장년 여성층의 사회적 대외적 활동에 대한 욕구와 이를 제약하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구조는 일을 지속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서문희 외, 2007) 일자리의 안정성과 임금 등의 처우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아동돌봄도우미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의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의 질 담보는 아동돌봄도우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아동돌봄도우미 양성 교육 및 보수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이들에게 자존심과 긍지를 주고 이들이 하는 주업무에 해당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단순 육아경험과 40시간의 교육프로그램만으로 0세에서 만12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돌본다는 것은 질담보가 어렵다. 이에, 체계적인 양성교육 속에 다양한 실습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자본개발체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셋째, 아동돌봄도우미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약 83%로 높게 나타났고, 소지한 자격은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순으로 나타나 아동돌봄도우미의 전문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아동발달에 있어 이들의 초기경험과 교육적 자극을 책임지게 되는 아동돌봄도우미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아동돌봄도우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국가자격 마련과 운영이 요구된다.

현재 중장년층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아동돌봄도우미의 인적자원개발은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성과 외에도 시간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양육경험과 전문지식의 함양을 통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장년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유도하는 지원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일규·변숙영·김기홍·김덕기(2008). 아동돌봄도우미 인력 현황 및 관리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기획재정부(2008. 7. 8 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로 2만 명 추가 수혜. 보도자료.
- 김승권(2006). 지역사회중심의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일신문(2006. 7. 26일자). 보도자료.
-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200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 대한민국정책포럼(2008. 5. 7자). 아이맡기는 고민 덜어드립니다. 보도자료.
- 서문희·신나리·이정원·이세원(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2006).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여성가족부(2007).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07). 아이돌보미 사업 지침.
- 여성가족부(2007. 11. 22자). 아이돌보미 사업. 보도자료.
- 장혜경·김영란·조현각(2007). 공식영역의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성은(2007). 200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현황과 운영성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한국여성노동자회(2007). 내부자료.
- Daly, M. and Jane Lewis(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2006). Employment in Social Care in Europe.
- <http://www.women-net.net/index.jsp>
- <http://www.blog.naver.com>
- <http://www.idolbom.or.kr>
- <http://www.civilnet.net>
- 논문접수 2010년 2월 23일 / 수정본 접수 5월 20일 / 게재 승인 6월 10일
 - 교신저자: 변숙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sybyun@krivet.re.kr

Abstract

The Current State of Management and the Tasks Ahead of Child Care Providers in Home

Sook-Young Byun Il-Gyu K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child care service institutions. For the above purpose, an analysis of literature, questionnaires and brain storming were used. As a result, most child care service institutions are operating on a small scale, and most child care providers are women, 40s, married with children and no certification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ild care service institutions in time of education for new child care providers. The remedial education is given on a regular basis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mise quality of education. It shows that a form of employment is not stable and wages are not reasonable as well.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ssure the stability and to give better treatment of child care providers to increase as a means of social participation for middle aged women. The systematic education or training devices are needed to improve both expertise of child care providers and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s.

Key Words: Child Care Providers, Human Resoruce Development